

윤병태 나주시장, 농정 현안·제도개선 건의

벼·나주배 생육·출하 점검…브루셀라·APC 등 현안 건의

수확기를 앞둔 나주 들녘과 나주배 유통 현장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작황과 수급 상황을 살피고 농업 현장에서 풀지 못한 제도적 과제의 해법을 모색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김중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주를 방문해 윤병태 시장과 함께 벼와 나주배 생육, 유통,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

로사항과 주요 농정 현안을 청취했다.

윤 시장은 이날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들을 설명하고 농식품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김 차관과 윤 시장은 신동진 벼 재배 농가를 찾아 병해충 발생 여부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농업인과 지역농협,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올해 작황과 수확기 쌀 수급 전망,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중구 차관은 “올해 수급 조절용 벼 직불 도입 등 선제적인 적정 생산 관리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나주 과수거점 산지유통

센터(APC)를 방문해 올해 생산된 나주배의 선별과 저장, 출하 과정을 살펴보고 생산 및 유통 동향과 나주배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병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나주시장 품질인증 프리미엄 브랜드인 ‘천년이슬 나주배’를 소개하고 국산 신품종 육성을 통한 품종 다변화 정책을 설명했다. ‘천년이슬 나주배’는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선별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나주배를 공급하기 위해 나주시가 육성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시는 신고 품종에 집중된 생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국산 녹색배 ‘설원’을 비롯한 신 품종 재배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현장 점검과 함께 나주시가 안고 있는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도 이어졌다.

윤 시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소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도태 명령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2@nonguplimes.com



▲윤병태 나주시장(오른쪽)이 김중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왼쪽)과 농정에 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농약은 덜 쓰고 방제는 더 확실하게

경기도 약제저항성 지도 서비스 실시

경기도는 농업인이 기상정보부터 병해충 예측, 약제저항성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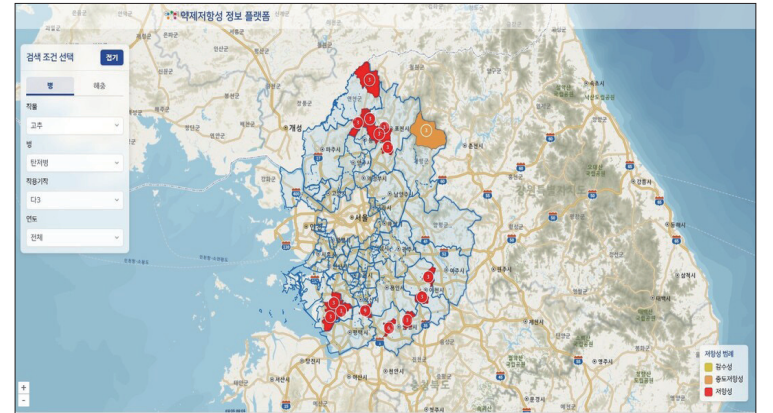
도는 ‘농업기상과 병해충 약제저항성 플랫폼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따로 운영하던 약제저항성 정보 플랫폼을 ‘경기도 농업기상과 병해충 시스템’에 통합했다.

약제저항성은 같은 계통의 약제를 반복 사용할 경우 병해충이 약제에 둔감해져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도는 기존 일부 해충에 한정됐던 저항성 정보를 주요 병해충까지 확대하고, 농업기상·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와 연계해 보다 종합적인 방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병해충별 약제저항성 진단 데이터 관리 ▲지역·작물·병해충·약제별 진단 결과 구축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 약제 정보 연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최신 등록 약제 정보 등이다. 특히 지

도를 기반으로 약제저항성 현황을 시각화해 작물과 병을 선택하면 어느 약제에 저항성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나 모바일로 ‘경기도 농업기상과 병해충 시스템’에 접속하면 기상예보와 병해충 발생 예측, 지역별 약제저항성 정보, 등록 약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약제저항성 정보 플랫폼(경기도정 제공)

경북도, 추석 샤인머스켓 ‘제때, 제대로’ 출하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출하 대책 논의

경상북도는 9월 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천·영천·상주·경산 등 도내 주요 샤인머스켓 주산지 시군과 농가, 산지유통센터(APC), 농협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샤인머스켓의 안정적인 출하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 문제,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해 샤인머스켓 출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9~10월 샤인머스켓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시장 불안을 사전에 완화하고, 미숙과 출하로 인해 떨어진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출하 시기 분산과 품질 관리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회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둔 샤인머스켓의 출하 및 가격 동향을 공

유하고, 출하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물량을 적절히 분산하면서, 품질 좋은 포도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생산 농가와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포도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살폈다. 농협과 산지유통센터(APC)는 입고 단계에서부터 상품의 품질을 꼼꼼히 확인해 저품질 샤인머스켓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안전이 기자

midal0210@naver.com

비상하는 K-FOOD 선도하는 KFIA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속가능한 식품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선도적 조정자로서 K-FOOD 세계화를 통해 식품강국 달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Korea Food Industry Association

한국식품과학연구원
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식품산업협회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41(방배동 1002-6) | 02-3470-8100 | www.kfia.or.kr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포일동 660-4) | 02-3470-8200 | www.kafri.or.kr

중앙·지방 합동예찰 결과 벼멸구 발생 확산

농가 철저한 예찰·적기 방제 당부

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 31일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농업기술원과 실시한 벼 병해충 중앙·지방 합동예찰 결과, 웅천읍·주산면·미산면 등 서해안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벼멸구 밀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농가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벼멸구는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기류를 타고 유입되는 이동성 해충으로, 최근 9월까지 지속되는 고온으로 세대교체가 빨라지고 증식 기간도 길어지면서 수확기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벼대 아랫부분에 주로 서식해 논 걸모습만으로는 초기 발생을 확인하기 어렵

고, 밀도가 높아지면 벼가 누렇게 변하면서 말라 죽는 ‘집단 고사’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논 안쪽까지 들어가 벼대 아랫부분을 살펴보고, 현재 중만생중

기준으로 포기당 약충과 성충이 2마리 이상 확인되면 신속히 방제해야 한다”며 “약액이 벼대 아랫부분까지 충분히 도달하도록 살포하고, 수확을 앞둔 시기인 만큼 농약별 안전사용기준과 수확 전 사용일수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벼 병해충 중앙·지방 합동예찰 장면(보령시청 제공)

안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기후시민참여단’ 출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

안성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이끌 민·관 협력 기구를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안성시 기후시민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6~2028)’는 에너지, 기후위기, 농축산, 산림 흡수원 분야 전문가와 시민 대표,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안성시 탄소중립 정책의 종합 조율 기구

(컨트론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함께 출범한 ‘안성시 기후시민참여단’은 폭염과 폭우 등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 안

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 주도형 기구다. 물관리, 산림·생태계, 재난·재해, 농축산, 건강 등 5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10명이 참여하며, 향후 1년간 기후위기 취약시설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을 거쳐 시민 체감형 적응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안성시 제공